

AUTHOR 이양호

TITLE 종교개혁과 목회자상

IN 연세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안
vol.16 (1996): 87-100

종교개혁과 목회지상

이 양 호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I. 서언: 중세 교회 목회지상과 종교개혁 목회지상 비교

무신론적 신학자 니체는 종교의 역사를 3단계로 설명했다. 제1단계는 인간을 신에게 희생 제사로 바친 것이었다. 제2단계는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 즉 자연성을 희생 제사로 바치는 금욕주의적 단계였다. 마지막 제3단계는 신 자신을 희생 제사로 바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다. 니체의 이 주장에는 철학자적 예지가 드러나긴 하지만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어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는 1518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28개 조문을 발표했다. 루터는 이 조문에서 중세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비판하고 새로운 십자가의 신학을 피력했다. 십자가의 신학은 루터 신학의 핵심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린 사건이다. 니체가 무신론을 주장하기 300여년 전에 이미 루터는 신의 죽음을 주장했고, 니체가 신을 희생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루터는 신이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루터는 신부가 매주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중세 교회의 미사를 공격했다. 성찬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라가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내려오는 은총의 제단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특수한 제사장 집단을 부정하고 만민제사장을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니체와 다르게 종교의 발전의 역사를 3단계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한 구약의 종교이다. 이것은 구약성서가 인류에게 준 잊지 못할 큰 선물이다. 제2단계는 중세까지 기독교가 행한 죄 없는 제사이다. 이것은 어쩌면 신약성서가 수많은 동물들에게 준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 제3단계 종교개혁에 와

서는 피 없는 제사마저 사라지고 제사를 드리는 특수한 제사장 집단까지 사라졌다. 종교개혁은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새로운 해방이었다. 루터는 1520년 「교회의 바벨론 포수」라는 유명한 저작을 집필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황청 종교의 포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루터는 이 저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해온 교황청 종교를 맹렬히 공격했다. 요컨대, 종교개혁은 잘못된 종교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이었다.

특정한 제사장 집단을 부정하고 만민제사장을 주장한 루터의 가르침을 버헤베르트 대학의 동료 교수였던 칼슈타트(A. Carlstadt)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칼슈타트는 우선 신부의 복장, 즉 제사장 예복을 벗어 던지고 농민들의 옷을 갈아 입었다. 그리고 고인들의 사해비를 사양하고, 밭에 나가 쟁기를 잡고 농사를 사작했다. 칼슈타트는 루터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생각했지만, 루터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목회자가 모두 칼슈타트처럼 성경 연구를 접어들고 들에 나가서 농사를 한다면, 농부들이 모두 목회자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만민제사장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농부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루터는 생각했다. 목회자들이 사해비를 사양하고 들에 나가 자기의 생활비를 버는 문제에 있어서도 루터는 비판적이었다. 물론 루터도 목회 활동에서 쫓겨한다면, 손수 일을 해서 살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스스로 교회에서 물러나 농장에서 일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여겼다. 루터는 이렇게 막살스럽게 표현했다. “가다로울 교인들을 떠나 동물들의 다정한 눈길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중세 교회의 목회자는 제사장 예복을 입고 손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재물을 바치던 제사장이었다. 종교 개혁의 목회자는 제사장 예복 대신 ‘샤우베(Schäube)’라고 하는 학자의 가운을 입고 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였다. 물론 제사장으로서는 중세 교회의 목회자상을 일방적으로 배도해서는 안된다. 크리소스톰의 글을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목회자상이 아름답고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제의 직임은 땅 위에서 수행되지만, 그것은 하늘의 일이다. 상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역은 천사나 천사장이나 어떤 피조된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혜사 자신에 의해 세워졌다.…… 그는 아직도 육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의 행위들을 모방하도록 명했다. 그러므로 사제는 하늘에서 권능자들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순수해야 한다.…… 당신은 주님이 기기서 제사 가운데 바치시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사제가 스스로 기도하며 모두가 보혈로 붉게 물들 때 당신은 여전히 땅 위에서 사람들이 가운데 서 있다고 느끼는가? 오히려 당신은 바로 하늘에 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엘리아가 자기 주위에 많은 무리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재물은 제단 위에 놓여 있고 어디에나 조용함과 깊은 침묵이 있다. 그 예언자는 홀로 서서 기도한다. 곧 불이 하

늘로부터 제단으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치시는 제사의 장면을 바꾸어 보라. 그러던 당신은 기적을 볼 것이다. 오히려 찬양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볼 것이다. 사제는 거기에 서서 불이 아니라 청령을 내려오게 한다. 그의 오랜 기도는 불이 재물을 사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제사 위에 내려와서 그 제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붙이고 그들을 불로 연단되는 은보다 더 밝게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사제는 오랜 기도로 미사라는 희생 제사를 통해 청령을 매개하고 청령의 불을 통해 영혼들을 불로 연단되는 은보다 더 밝게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제의 숭고한 사명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지위지지’ 않는 각인(indelible character), ‘사효성’(opus operatum) 등의 교리에 의해 청령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위지지’ 않는 각인이란, 한번 사제로 서품 받으면 불에 달군 쇠도장을 맞은 것처럼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다. ‘사효성’이란,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 관계 없이 성례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서품 받은 사제가 배종 성체는 그 자체가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령의 역사가 개입될 자리가 없다. 루터는 ‘지위지지’ 않는 각인이라는 교리에 반하여, 교회가 오늘 성직을 주었다가 내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칼빈은 사효성의 교리를 악마의 교리라고 공격했다.

II. 종교개혁자들의 목회자상

지난 2천년 동안의 목회자상은 여러 모습으로 변천해 왔다. 초대 교회의 주된 목회자상은 ‘목자’(pastor)였다. 중세 교회의 주된 목회자상은 ‘사제’(priest)였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주된 목회자상은 ‘설교자’(preacher)였다. 근세 교회의 주된 목회자상은 ‘복음 전도자’(evangelist)였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강조된 목회자상은 ‘종’(servant)이었다.

1. 설교지로서의 목회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두 표지로 말씀과 성례를 들었다.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visible word)였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였다.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례를 집행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큰 소리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선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성례를

성체되게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체를 집례할 때에는 성체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을 주장했다. 설교 말씀이 성체를 성체되게 하는 것이다.

칼빈(J. Calvin)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 속에 빛남으로 그의 중들을 통해 말씀할 때마다 마치 그가 우리의 대면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 감동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입이 자기 입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입술이 자기 입술로 간주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많은 중요한 은사들 중에서 독특한 특권은 그가 사람들의 입과 혀를 자신을 위해 성별하고 그것들 안에서 자신의 음성을 울리게 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목사를 사용하는 것인가? 칼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존중을 신포한 것이다. 둘째,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포하는 것은 듣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신다면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흠으로부터 나온 보잘 것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우리보다 아무 것도 갖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사역에 순종을 보인다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유대 속에 있을 때 상호 사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2. 학자로서의 목회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서를 부지런히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야 했다. 칼빈은 말하기를 "만약 무엇보다 먼저 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사역자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예언이란 성서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선하고 신실한 목사의 책임은 단순히 성서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기 위해 진지함과 예리한 통찰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루터는 1523년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 시대에 학문이 쇠퇴함에 따라 신학이 반드시 비참하게 지체되고 약화되었음을 볼 때, 학문 연구에 있어서 숙련된 훈련 없이 어떤 참된 신학도 세워지고 지탱될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다른 한편 세계 요한의 경우처럼 먼저 언어와 학문 연구를 진행시키고 추구함으로써 길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신적 진리의 분명한

게시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의심할 나위없다." 루터는 소년소녀를 위한 학교를 세워 그들을 교육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공중 도서관을 세우되, 성서뿐 아니라 기독교 고전과 회람, 로마의 고전들을 비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도서관에는 이와 함께 법률, 의학, 예술, 과학, 역사에 대한 저서를 비치하도록 했다.

루터는 루터가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를 향해 자연과학에 대해 너무 무식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지금 세 시대의 새벽에 도달해 있다. 왜냐하면, 이담의 터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하였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전 교황제 때와는 달리 피조물들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어떻게 세상의 배종으로부터 열매가 생기는지 알아보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아주 섬세한 꽃 한 송이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경이를 제대로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눈을 돌리는 곳마다 이 우주에 그 영광의 불꽃을 볼 수 없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당신은 그 광명의 끝없는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는 광대한 이 우주의 지극히 크고 아름다운 체계를 한 순간도 조망할 수 없다." 또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우주의 정교한 질서는 우리에게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 법률가의 법률에도, 철학자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있다. "시민적 질서의 규율을 매우 공정하게 확립한 고대 법률가들 위에 진리가 빛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것인가? 철학자들은 자연에 대해 바로 관찰하고 예술적으로 묘사했는데 그들을 눈이 어둡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이 주체들에 대한 고대인들의 처각들을 높이 찬양하지 않고 위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뛰어나았는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란다." 종교개혁자들은 무식한 가톨릭 신부들에 대해 유식한 학자들로 비교곤 했다. 그들은 사실상 사우배, 즉 학자의 가운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3. 교사로서의 목회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였다. 이 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이 학교의 교사들은 목회자들이었다. 칼빈은 가르치는 직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다.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서문에는 교회는 항상 아동들을 기독교 교리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는 일을 힘써 행해왔으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전부시켰다고 비판하고 교회교육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 교리문답 308항에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목사로부터 한 번 교육 받는 것으로 충분인가? 아니

면 평생동안 이 과정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묻고, 아담은 “계속하지 않는다면 시작할 것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끝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평생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의무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평가에 있어서 바보들”이 되며, “그리고 아동들처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요구하신다고 말했다. 어떤 목사가 회중에게 가르칠 것을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회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를 기적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순종”을 나타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회중이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까지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목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은 가장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우리에게 속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할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목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4.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목회자

종교개혁자들은 목회자를 영혼의 인도자로 보았으며, 그들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상담을 해주었다. 그들은 직접 상담에 응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 상담해 주기도 했다. 그들의 상담 대상은 왕이나 체후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살로 각계 각층에 이르는 사람에까지 방과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담자들에게 대해 용기와 애정을 가지고 상담해 주었다. 목사는 “왕들과 양후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책망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민중들이나 낮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은 말한 바 있다.

또한 칼빈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의 직무는 다 끝나서 쉬기만 하면 될 정도로 우리의 직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최대한 직접적이고 섬 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 피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태만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칼빈은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을 부모처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말씀의 사역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처럼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는 봉사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5. 목회자로 소명받은 자: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교회의 사회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내적 소명을 강조했다. 내적 소명은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것으로, 본인 이외에 아무도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소명 없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했다. 칼빈은 이렇게 한탄했다. “목사의 직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100명 중 거의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직임을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 직임을 시작한다. 그리고 후에 경험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알지 못하는 것을 열망했는지를 알게 되지만, 너무 늦다.…… 또한 목사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용병들이 있다.” 외적 소명은 교회가 목사로 부르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건전한 교리와 기록한 삶을 구비했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6. 기도의 시립, 성령의 시립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기도와 성령의 사임으로서의 목회자를 강조했다. 칼빈 연구의 대가였던 위빙드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규정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의 은총에 대한 교리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시작되었고, 보상에 대한 교리가 안셀무스에게서 시작되었고, 신앙의 인본이 루터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교리는 칼빈이 교회에 준 선물이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그는 “그의 손에서 교회 사상 처음으로 성령론이 자기 자리에 왔다. 이는 누구의 마음 속에서보다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빛났으며,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는 누가 그보다 자기를 피로 산 구주에게 더 헌신했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칼빈의 모든 사상을 특징짓는 것은 성령의 전능한 능력에 의한 구원의 주관적 역사에 대한 의식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신학자’라는 위대한 이들을 받을 만하다.” 카빈 부처 연구자들은 성령에 대한 이같은 강조는 부처가 칼빈에게 끼친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츠빙글리(U. Zwingli) 연구자들은 루터의 공체설이나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에 대한 태안으로 츠빙글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고 보고 있다. 츠빙글리는 중세 교회에서 성령의 역할로 둘러싼 것을 성령의 역할로 돌렸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강조했다지만, 말씀 그 자체로는 외적 말씀, 즉은 문자에 불과하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의 말씀에 결합된다. 하지만 구별된다. 이는 외적 말씀이 성령의 힘에 의해 생명이 불어넣어 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무용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칼빈은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면 그들에게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고 꼭 말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이 일 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기도 가운데 살고 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호흡 하나하나 가 다 기도이다.” 또한 루터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떠받쳐 주고 있 다. 만일 기도가 없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못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 다.

칼빈의 애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칼빈의 애정론이 기도를 불필요하 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칼빈은 누구보다 기도생활을 강조했다. 칼빈은 하 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불필요하다 고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며, 우리는 기도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보화에 이르기고 했으며, 또한 “우리는 기도에 의해 보물을 파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칼 빈은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필요한 것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계속 기도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명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종교개혁자들의 글은 피상적으로 읽으면 목회자가 설교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만 해야 하는지 혼동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에 게 있어서는 양자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다.

7. 모범 기도의 모범 기장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들에게 결혼을 금지한 교회의 금규를 깨고 모두 결혼했다. 루터는 43세의 수도사로서 26세의 수녀와 결혼했으며, 츠빙글리는 39세의 신부로서 안나 마이어라 는 과부와 결혼했다. 칼빈은 32세에 자녀가 둘 있는 이틀레트라는 과부와 결혼했다.

루터는 결혼을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결혼을 비방하고 결혼을 수치 스러운 것으로 만든 자는 악마라고 주장했다. 악마는 성직자들에게 결혼을 못하게 해 놓고 그 대신 온갖 성적 죄에 빠지게 했다고 루터는 보았다. 그래서 수도사 루터가 수녀와 결혼한 것은 악마의 계교를 깨뜨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적 우망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보 가 드물다고 했다.

루터는 3남 3녀를 두었으며, 루터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다. 루터는 “나는 나의 부인 카타를 프랑스와 빠스카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부인에게 이러 려게 말했다. “카타,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정직한 남자와 결혼했소. 당신은 황후요.” 루터 의 가정은 지금까지 독일 가정의 모범적 가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루터의 결혼 생활 이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두 딸이 어린 나이에 숨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던 것이다. 루터는 가정을 인격유는 학교라고 말했다.

칼빈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칼빈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인가에 대해서는 칼빈 연 구자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이다. 필자의 연구로는 자코리는 아들이 태어났고, 또 어려서 죽 은 딸이 있다. 아꼈던 칼빈은 아들 하나만을 낳은 금육주의자가 아니라, 부부 금술이 좋은 사람이었다. 칼빈이 40세가 되어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슬퍼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 생애에 훌륭한 동반자를 잃었다. 그녀는 불행이 찾아올 때도 비참함 속에서뿐만 아 나라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자발적인 나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슬픔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으려 한다. 더욱이 나의 친구들은 주변에서 내 영혼의 비애를 덜어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한다.…… 피곤한 자에게 활기를 주시는 그 분이 하늘로부터 내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더라면 분명히 죽일 수밖에 없었던 내게도 힘 주시길 바란다.”

종교개혁자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혼으로 파탄되는 20세기의 가정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종교개혁자들의 목회 활동

1. 루터의 비텐베르크 목회 활동

독일의 지도에는 비텐베르크가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Lutherstadt Wittenberg)라 고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큰 영향을 남겼다. 루터가 살던 대략같은 3 층집은 루터의 박물관이 되어 루터의 체취를 전해주고 있다. 루터가 95개조 조문을 붙인 성 라교회 안에 루터의 시신이 매장하든의 사진과 함께 걸려어 있다. 시장 광장에는 루터의 동 상이 비텐베르크 시민들을 내려다 보고 있다. 독일의 절반 그리고 부구는 루터교 국가이다.

비텐베르크에는 루터가 95개조 조문을 붙였던 성라교회 이외에 교구교회가 있었다. 루터 는 이 교회에서 매주일 설교를 했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유럽 전역에서 모여

든 학생들은 루터의 강의를 듣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종교개혁 운동에 매진했다. 루터의 집에는 매일 20여명의 손님들이 들끓었고, 루터는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이 탁상담화만해도 6권의 방대한 분량의 저작으로 편집되어 있다. 루터는 수많은 편지를 통해 왕, 제후,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영적 교제를 가졌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독일과 유럽의 영적 지도자였다.

2. 츠빙글리의 취리히 목회 활동

츠빙글리가 취리히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은 1519년이었다. 그가 취리히의 목회자로 부임하기 전에 그에 대한 두 가지의 반대가 있었는데, 음악을 좋아해서 경박하다는 점과 정적으로 탈선했던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풍문을 솔직히 시인하고 취리히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결국 취리히는 그를 목회자로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 츠빙글리는 부임하자마자 1월1일 주일에 마태복음 1장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어 시도행진, 다모데전 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전후서 등, 1525년까지 6년동안 신앙성경에 대한 설교를 끝내고 그 후에 구약성경 설교를 계속했다.

츠빙글리는 헬라어 성경을 강대상에 펼쳐놓고 헬라어를 읽으며 한구절 한구절 설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불링거(H. Bullinger)에 의하면 츠빙글리는 베투서신 모두를 한글자 한글자 펼쳐서 헬라어로 읽송하였다고 한다. 철저한 성서 연구와 그 연구에 근거한 설교가 츠빙글리의 목회 활동에 중심이었다.

1519년 전염병 페스트가 취리히를 휩쓸었을 때 츠빙글리는 바드 페퍼스(Bad Pfäfers)에서 광천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페스트가 발생하면 도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전염병 소식을 듣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급히 취리히로 되돌아 왔다. 그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마침내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메기도 하였다. 이때 그는 "전염병 시를 썼다. "나를 도우소서, 오 주여, 나의 힘이자 나의 반석이시여, 보시옵소서, 문에서 나는 죽음의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팔을 드옵소서, 한때 나를 위하여 드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던 그 팔을.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에서 회복되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당신의 손으로 치료하셨나이다. 죽음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나이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입은 오직 당신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죽음과의 이러한 사투는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력감을 더욱 실감나게 하였고, 그를 더욱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했다.

1523년 츠빙글리가 작성한 67개 조문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진영과 가톨릭 진영 사이에는

쟁이 시작되었다. 1524년 4차 논쟁에서 종교개혁 진영이 완전히 승리하고 취리히 시의회는 종교개혁을 지지했다. 교회에서 성상들과 오르간을 제거하고 벽들은 흰 색으로 칠했다. 츠빙글리는 스위스 전역으로 개혁운동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스위스는 개신교 진영과 가톨릭 진영으로 양분되었고 마침내 1531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츠빙글리는 종교 목사로 무장하고 양날 선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터로 달려갔다. 그는 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마침내 전사했다. 실로 츠빙글리는 조국 스위스를 바른 종교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심정을 바쳤다.

3. 칼빈의 제네바 목회 활동

비텐베르크를 방문하고나서 제네바를 방문하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제네바는 더 이상 칼빈의 도시가 아니다. 칼빈이 목회한 생 피에르(Saint-Pierre) 교회당 안에는 칼빈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지 않다. 루터의 시신이 석곽에 싸여 비텐베르크 성곽교회당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칼빈의 시신은 공동묘지의 구석에 칼빈의 유언에 따라 평토장되어 있다. 비석도 없고 단지 조그마한 돌에 'J. C.'라는 약자가 쓰여 있을 뿐이다. 칼빈이 살던 집 앞에는 조그마한 대리석 판에 '존 칼빈이 여기서 1543년부터 1564년까지 살았다'는 표시가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칼빈의 체취를 느낄 수 없다. 칼빈의 고향은 제네바가 아니라 하늘나라였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먼약 죽음을 후에 영원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야수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 "정신은 먼저 현재 생활에 대한 경멸로 침투되지 않으면, 내세를 갈망하고 사랑하도록 결코 진지하게 환기되지 않는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열망하기보다 죽음에 대한 큰 공포에 싸여 있어서 죽음을 언급하기조차 두려워 하는 것은 기괴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통해 고국에 유하기 위해 땅에서 도로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위로를 얻지 않을 것인가?" "육체의 눈 멀고 우둔한 욕망이 저항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모든 것 중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겨..... 고대하기를 주재하지 말라. 그는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모든 악과 고통의 밑없는 심연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유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죽음의 날과 마지막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회교에서 진급하지 못한다."

칼빈은 이처럼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었다. 하늘나라에 마음을 둔 사람이 현재에서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같지만 진리이다. 훌륭한 목회를 원한다면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 고인들은 묵시에게서 하늘나라의 음성을

듣고 싶어한다. 이 세상의 정보는 인터넷 앞에 있으면 무공무전하게 쏟아져 나온다. 현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늘나라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살해된 어린이가 1년에 150만명이 된다고 한다. 하늘나라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성취 도취에 빠지는 것이다. 술, 담배, 환각제를 사용하는 연령이 더 낮아지고, 더 확산되고 있다. 이혼률이 높고 가정 파탄이 증가하고 있다. 성령의 부요심만 이 이를 극복할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많은 위대한 신학적 저작들을 썼다. 그러나 그는 「신학대전」을 쓰고 있던 1273년 12월에 하늘나라의 신비를 체험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비서에게 「신학대전」을 쓰는 일을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내가 보고 내가 받은 계시에 비할 때,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주일에 두 번, 월수금요일 한 번씩 설교를 했던 것 같다. 제네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상담에 응해야 하고,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조언을 해야 했다. 적어도 칼빈 당시의 제네바는 칼빈의 제네바였다. 동시에 유럽 각지에서 제네바 대학으로 유력한 학생들에 의해 칼빈의 사상과 정신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마음을 둔 그가 국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적 인물이 되었다.

4. 종교개혁자들의 목회 활동의 일반적 성격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티와 조빙글린과 칼빈의 모범을 따랐다. 한 연구가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들 중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결혼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 분리된 목회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목회를 했다. 그들의 주된 활동은 설교였다.

종교개혁의 과정을 일반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개혁 운동가가 한 지역에 들어간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주의적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영주나 시의회 지도자들이 종교개혁 진영과 가톨릭 진영 사이에 공개토론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이 공개토론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설득력있는 말로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영주나 시의회 지도자들이 복음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에 당시의 황제나 가톨릭 왕이나 교황주의자들의 탄압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신앙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면,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 운동, 복음주의가 만개했을 것이다.

IV. 결 어

1. 종교개혁자의 목회자상의 초시대적 특성

종교개혁자들의 목회자상, 그것은 학자의 겸손 기운을 입고 한 손에 성경을 펼쳐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류의 영원한 고전을 다시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생활의 중심에 둔 것은 그들의 공헌자가 영원한 영향력이다. 나같은 죄인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는 그후 창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복음주의 운동, 대각성 운동으로 거듭거듭 끼치지 않는 불로 나타나 심령을 갱생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2. 종교개혁자의 목회자상의 시대적 한계성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경계했다. 하나는 가톨릭적 마신의 잔재였고, 다른 하나는 공신주의자들의 주관주의였다. 그들은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을 매주일 행하고 싶었지만 성찬상이 미신적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일 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의 말씀이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교회 생활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운동을 범지한 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성령운동을 극도로 자제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 체세레파 교회에서는 성령 인의 사랑의 교제라는 명목으로 모든 담자 교인들이 모든 여자 교인들과 한 번의 성적 교제를 가지도록 했다. 그래서 서 푸터는 오순절 성령 임재와 같은 가시적 임재는 초기 교회에만 국한되고 지금은 성령이 말씀에 의해 신자들의 마음에 임재한다고 주장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성서의 영역에 제한시킨 것은 종교개혁의 시대적 한계였다.

하버드 대학의 허비 콕스 교수는 1995년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Fire From Heaven)이라는 저작을 내놓았다. 그 책의 부제는 “오순절 영성의 기원과 21세기의 종교의 재형성”이다. 그는 꼭 30년 전인 1965년에 「세속 도시」(The Secular City)라는 저서로 일약 세계적인 신학자로 등장했던 인물이다. 37세의 신진 교수의 저작과 67세의 원수한 노장 교수의 저작은 동일인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30년전 종교이후시대에 나타날 종교의 쇠락에 대한 예견과는 달리 종교 전반에 있어 새로운 활기가 회복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사라지고 있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세속성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교회의 종교의 부정적 미래에 대한 신학자와 사회학자들의 그같은 예

성서의 목회자상

언들은 분명 잘못이었다. 그들은 20세기의 급속한 과학 문명의 발달과 도시의 번성이 점진적으로 종교를 인간 생활의 주무대에서 밀어내고 결국 종교는 그 뿌리를 상실한 채 소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주장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물러나 언급을 받기도 전에 일종의 종교 부흥의 조짐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분명 새롭게 갱신된 종교적 활력의 시대, 온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또 하나의 종교적 각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종교가 쇠퇴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 학자의 기운을 입고 손에 성경책을 펴 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기독교의 부흥에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

유 상 련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I. 서언

오늘 우리는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목회자의 이미지를 검토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성서 가운데서, 먼저 구약에 나타난 어떤 목회자 이미지를 매우 간략히 살펴본 다음, 신약에서 발견되는 목회자의 모습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에 입각할 때, 구약 부분 보다는 신약 부분의 고찰이 좀더 상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 구약의 목회자 : 시편을 중심으로

구약은 방대하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구약은 방대하다. 이 방대한 문헌과 그 문헌이 포괄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단일한 하나만의 전형적 목회자 상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많은 목회적 인물이 명멸한 기록이 이 책이고, 그에 합당한 구약적 목회자 상을 허다히 표집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한정된 시공간에 구약의 목회자를 그려본다는 것은, 자의(恣意)로 선정된 ‘특정’ 목회자 이미지의 어떤 ‘부분적’ 측면만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만 그러한 한계 안에서나마 바르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전 역사의 파노라마 가운데서 임의로 선정한 시편 기록자들, 그 다양한 필진을 포함하는 시인들의 목회적 이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시문학의 산출자들이 이룩한 탁월한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에 못지않게 그들이 간직한 목회자의 독특한 이미지에 관해서도 우리는 많은